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3(1):1-9, 2008
KOREAN J. FOOD CULTURE 23(1):1-9, 2008

대전시 주부의 외식행동 및 식습관에 대한 조사

임영희 · 나명인*
대전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A Survey on Dining-out Behaviors and Food habits of Housewives in Daejon

Young-Hee Lim, Myeung-In Na*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Graduate School, Daej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offer some basic data for nutrition education to housewives by comparing behaviors of eating out targeted on housewives who live in Daejon surveyed by classification of regions and by family forms. As for their ages, 79 housewives (16.0%) are less than 30, 179 housewives (36.8%) are between 30 and 39, 156 housewives (35.9%) are between 40 and 49 and 74 housewives (15.2%) are more than 50, and as for their final academic careers, 204 housewives (41.9%) graduated from universities, which was the most and as for religions, 172 housewives (35.3%) had no religion, which was the most, and in the case that they had religions, 137 housewives (27.5%) believed in Christianity. And as for occupations, 327 housewives (69.0%) had no job, and in case they had jobs, 123 housewives (25.3%) that occupied the most were professional. As for husbands' occupations, profession was the most for 143 housewives (29.4%) and as for monthly income, 2 million won~3 million won was most as 40.0%. As for times of eating out, '4 times a year' was said by 131 housewives (26.9%), which was the most, and as for the times of food home service, 'seldom' was said by 221 housewives (45.4%), and as to the expense for eating out a month, 'less than 100,000 won' was said by 219 housewives (45.0%), which was the most, and as for the reasons of their eating out, 'for harmony in a family' was said by 119 housewives (24.4%). As for times of eating out by general items of housewives, it was appeared that the younger, the higher in education, less in religion, more in occupation, the more professional in their husbands' jobs, the more nuclear in family forms, fewer in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the more average family income per a month, they had more times of eating out. Regarding the factors influencing on eating out, 'high price', 'nutritive imbalance' and 'use of MSG' were pointed by 204 housewives (41.9%), 83 housewives (17.0%) and 63 housewives (12.9%) respectively as the problems of food service shops. And as for the question why their went to their regular restaurants, 185 housewives (38.0%) said 'taste of food', and the most considerable thing when they selected menu at a restaurant was 'taste of food' for 167 housewives (34.3%). The survey showed that a lot of housewives thought the prices at restaurants were high, and they valued taste of food most, therefore food service shops should improve the taste and nutrition of food.

Key Words : Housewives, Eating out, Food habits

I. 서 론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산업구조가 확대되면서 가족의 일원이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가족들은 가정 안에서의 식사 횟수는 점차 감소되었고, 점심, 저녁 중 한 끼 이상을 가정 밖에서 개별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되었다(Lim 1996; Park 등 1996; Hong 등 2002). 이와 같이, 식생활 현장이 가정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면서 이른바 식생활의 외식화 및 그에 따른 외식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Choi 1990; Moon 등 1996). 1980년대 이후 우리 국민의 식생활은 급속한 산업화와 소득의 향상,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레저생활의 확대 등 외식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사회 · 경제적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전통적인 내식 중심의 식생활에서 편의 식품의 이용 증가와 외식 지향적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Kim 등 2001). 한편, 도시가계의 가구당 식료품비 중 외식비가 80년에는 8.7%에 불과 했던 것이 90년에는 20.3%였으며 IMF 관리 체제 이후 절대적인 외식비는 줄었으나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는 계속 증가하여 98년에는 33.5%, 99년에는 35.5%, 2000년에는 39.8%로 증가하였다(Kim 등 2000). 외식의 동기 자체가 과거에 비하여 일상생활의 간편화, 사

*Corresponding author: Myeung-In Na, Dept. of Food and Nutrition ,Daejon University, 96-3 Yongun-dong, Dong-gu, Daejon 300-716, Korea
Tel: 82-42-280-2468 Fax: 82-42-280-2468 E-mail: fkauddls@nate.com

교화, 레저화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등 1996; Chang 1996; Park 2004). 현대에 있어서 외식비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소득증대 및 평준화, 소비의식 패턴의 변화, 생활의 레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주부의 시간가치 상승, 핵가족화 등 많은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Ahn 1985; Mo 등 1987; Kim 2004). 특히 IMF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가정에서 주부의 가사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외식의 빈도는 더욱 늘어났다(Mo 등 1986; Kim 등 2000; Yang 등 2000; Yoon 2005; Kim 2005).

또한, 한 가정에서 식생활에 전반적인 영향력이 있는 주부의 식생활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가족 전체의 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가족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Ann 등 1988; Jang 등 1995).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가 구입하는 식품의 종류와 양은 주부의 식사준비에 대한 관심도와 식품선택의 성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부의 식품구매 성향은 가족들의 기호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식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습관적으로 구입하던 식품만 구입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경우 자연히 가족들의 식생활은 다양하게 형성되기 어려우며 이는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식습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Cheong 1995; Lee 1996; Lee 등 2001; Nam 2003). 어린이의 식품 기호도가 부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비율이 64.8%나 되므로 부모에 대한 영양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Moon 등 197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로써 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영양지식을 전달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다(Chung 등 1985 : Lee 1992; Ly 등 2001). 그러므로 주부에게 올바른 영양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주부의 식습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영양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겠다. 이와 같은 외식 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가정의 외식행동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가정의 식생활 관리자인 주부를 대상으로 외식에 대한 인식과 외식형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대전지역의 외식경향을 알아보고, 주부의 식습관을 파악하여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대전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2004년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대전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의 다섯 지역으로 구분하여 519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총 487부(회수율 93.8%)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Cheong(1995)와 Kim(2002)의 관련문항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대전광역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주부의 일반사항, 외식행동, 식습관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주부의 일반사항으로는 거주지, 나이, 교육정도, 종교, 직업, 가족형태, 한달수입 등을 조사하였고, 외식횟수, 배달음식 이용횟수, 한달 외식비, 외식이유, 1회 외식비용, 주로 선택하는 메뉴, 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주부의 식습관은 식사의 규칙성 여부, 식사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루 세끼 식사의 규칙성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식사의 규칙성을 묻는 문항은 일반사항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3.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V12.0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부의 일반사항, 외식행동, 식습관은 빈도와 백분율을 조사하였고 거주지와 가족형태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χ^2-test로 검정하여 상호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조사대상 주부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인 주부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 동구 20.3%, 중구 20.3%, 서구 20.7%, 유성구 21.1%, 대덕구 17.5%의 비율로 조사되었고,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16.0%, 30세~39세 36.8%, 40~49세 32.0%, 50세 이상이 17.5%로 30~39세가 가장 많았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2.7%, 중학교 졸업 7.6%, 고등학교 졸업 35.9%, 대학교 졸업 41.9%, 대학원 졸업이 11.9%로 대전시 주부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00b)의 전북지역 주부의 외식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38.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종교의 분포를 살펴보면, 불교 18.9%, 기독교 7.6%, 천주교 18.3%,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35.3%로 나타났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69%의 주부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31%의 주부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Kim 등(2000b)의 전북지역의 직업이 없는 주부 77.0%, Moon 등(1996)의 부산지역의 직업이 없는 주부 67.3%와는 차이를 보였다. 주부의 직업의 종류는 일반 사무직 11.7%, 전문직 25.3%, 생산직 9.7%, 판매직 12.7%, 서비스직 9.7%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직 29.4%, 공무원 16.0%, 사무직 15.2%, 판매직 15.8%, 기술직 7.4%, 기타 3.7%, 직업이 없음 4.7%, 남편이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Characteristics	Items	Frequency
Area	Dong-gu	99(20.3)
	Jung-gu	99(20.3)
	Seo-gu	101(20.7)
	Yuseong-gu	103(21.1)
	Daedeok-gu	85(17.5)
Age(years)	<30	78(16.0)
	30-39	179(36.8)
	40-49	156(32.0)
	≥50	74(15.2)
Education level	Primary school	13(2.7)
	Middle school	37(7.6)
	High school	175(35.9)
	College&university	204(41.9)
	Graduate school	58(11.9)
Religion	Without	172(35.3)
	Christianity	137(27.5)
	Buddhism	92(18.9)
	Roman Catholicism	89(18.3)
Total		487(100.0)
Job	No job	151(31.0)
	Professional worker	123(25.3)
	Sales worker	62(12.7)
	Civil servants	57(11.7)
	Service worker	47(9.7)
	Manufacture worker	47(9.7)
Kinds of Husband's job	Professional worker	143(29.4)
	Civil servants	78(16.0)
	Srvice worker	77(15.8)
	Office worker	74(15.2)
	Not response	38(7.8)
	Engineers	36(7.4)
	No job	23(4.7)
	Others	18(3.7)
Family forms	Large family	99(20.3)
	Small family	388(79.7)
Number of family	<3	85(17.5)
	3-4	272(55.9)
	5-6	123(25.3)
	>7	7(1.4)
Total		487(100.0)
Family monthly income unit (10,000 won)	<100	6(1.2)
	100-200	59(12.1)
	200-300	195(40.0)
	300-400	152(31.2)
	>400	75(15.4)
Total		487(100.0)

주부가 7.8%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대가족 혹은 확대가족 20.3%, 핵가족이 79.7%로 Park 등(2001)의 서울지역 거주자의 가족형태 중 핵가족 91.9%와는 차이가 있어 서울보다 핵가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가족의 한달 평균 수입은 100원 미만 1.2%, 100~200만원 12.1%, 200~300만원 40.0%, 300~400만원 31.2%, 400만원 이상이 15.4%로 3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46.6%로 Kim(2004)의 진주시의 300만원 이상의 비율인 13.4%보다 높았고 통계청(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2003)의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인 265만원과 비교하여 대전지역의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주부의 외식행동

대전에 거주하는 주부의 외식형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주부의 외식 횟수는 '1년에 4회' 26.9%, '한달에 1회' 26.5%, '한달에 2~3회' 20.5%, '거의 없음' 15.2%, '일주일에 1~2회' 10.9%로 '1년에 4회'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외식 횟수가 '한달에 1회' 25.3%인 Ahn(1985)의 연구와 비슷하였고 '한달에 1회 이상'인 응답자가 57.9%로 나타난 Moon(1996) 등의 부산지역 주부의 53.8%와 크게 다르지 않아 다른 지역 주부와 비슷한 외식 횟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거의 배달하여 먹지 않는다' 45.4%, '일주일에 1~2회' 38.6%, '일주일에 3~4회' 12.9%, '일주일에 5~6회' 1.2%, '거의 매일'이 1.8%로 나타났다.

한달 외식비는 '10만원 이하' 45.0%, '10~20만원' 21.3%, '20~30만원' 19.9%, '30만원 이상' 2.9%로 '20만원 이하'가 전체의 66.3%로 Kim(2004)의 전주시 직장인의 외식 선택 요인에 대한 조사의 '20만원 이하'의 비율인 71.7%였던 것 보다 낮게 나타나 전주시의 가정보다 외식비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을 하는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족간의 화목을 위해서' 24.4%, '특별한 날이어서' 20.7%, '조리하기 귀찮아서' 17.2%,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17.2%,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12.3%, '입맛이 없어서' 8.0%로 나타나 Ahn(1985)의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외식에 관한 조사의 중년여성의 외식 동기 중 '편리해서 외식 한다'는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던 것과는 차이를 보여 과거와는 다르게 가족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식 시 1회 비용은 '3~5만원'이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7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Moon 등(1996), Kim 등(2002)의 연구에서는 1인당 외식 비용이 '5천원~1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시 주로 선택하는 메뉴를 묻는 질문에는 '한식'이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아 한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Moon 등(1996), Kim 등(2000), Kim 등(2001), Park 등(2001), Kim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배달하여 먹을 때 주로 선택하는 메뉴는 '중국음식'이 41.1%로 가장 높았으며 피자, 통닭, 분식, 일식, 양식, 한식 등의 순서로 선호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Eating out behavior of housewives N(%)

Characteristics	Items	Frequency
Frequency of eating out	Mostly not	74(15.2)
	4times per year	131(26.9)
	1 time per month	129(26.5)
	2-3 times per month	100(20.5)
	1-2 times per week	53(10.9)
Frequency of delivery food	Mostly not	221(45.4)
	1-2 times per week	188(38.6)
	3-4 times per week	63(12.9)
	5-6 times per week	6(1.2)
	Everyday	9(1.8)
Monthly eating out expense (10,000 won)	<10	219(45.0)
	10-20	154(31.6)
	20-30	97(19.9)
	>30	14(2.9)
	Not response	3(0.6)
Main reasons to eat out	For harmony in a family	119(24.4)
	On a special day	101(20.7)
	Troublesomeness of cooking	84(17.2)
	To enjoy delicious food	84(17.2)
	Lack of time to prepare food	60(12.3)
	No appetite	39(8.0)
Total		487(100.0)

일반사항에 따른 외식 횟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거주지에 따라 동구 지역 주부의 경우 '1년에 4회'가 32.3%로 가장 높았고, '1개월에 1회'라는 응답이 30.3%로 두 번째로 높았다. 중구에 거주하는 주부는 '1개월에 1회' 외식한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높았고, '1년에 4회'가 27.3%를 차지했다. 서구지역의 경우 30.7%가 '1개월에 1회'라고 대답했고, '1개월에 2~3회 정도 외식 한다'는 대답도 24.2%로 나타났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주부의 경우 '1년에 4회 정도 외식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7%였고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부의 경우 '전혀 외식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25.9%를 차지해 다른 지역에 비해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부의 외식 횟수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주일에 1~2회 정도 외식 한다'는 대답은 유성구가 16.5%로 가장 높아 대덕구와 유성구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 따른 외식횟수는 '일주일에 1~2회'라는 응답이 30세 미만의 경우 29.5%로 가장 높았고, '30~39세'의 경우 10.6%, '40~49세'는 7.1%, '50세 이상'은 해당하는 주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층이 어릴수록 외식 횟수가 빈번하다는 Moon 등(1996), Kim 등(2000), Kim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p<0.001$).

교육정도에 따른 외식횟수는 '전혀 외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주부가 38.5%로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1~2회'라는 응답은 대학원이상 졸업의 학력을 가진 주부는 22.4%,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주부는 15.2%, 고등학교 졸업을 가진 주부는 5.1%, 중학교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주부는 해당하는 주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학력이 높을수록 외식횟수가 증가하여 유의적인 차이($p<0.001$)를 보였고, 다른 연구(Moon 등 1996; Kim 등 2000)와 일치하였다.

종교에 따른 외식횟수는 '1개월에 1회 이상' 외식하는 응답이 불교는 57.6%, 기독교 53%, 천주교 53.0%였으며, 종교가 없는 주부는 68.0%로 나타나 Moon 등(1996)의 종교가 없는 주부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부보다 외식횟수가 많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 '일주일에 1~2회 외식 한다'라고 응답한 주부의 종교는 불교가 5.4%, 천주교가 22.5%로 불교를 믿고 있는 주부보다 천주교를 믿고 있는 주부가 외식을 더 자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두 종교 사이의 외식 횟수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직업의 종류에 따른 외식횟수는 사무직의 주부의 경우 '일주일에 1~2회 정도 외식 한다'라는 대답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직의 주부의 경우 '1개월에 2~3회 정도 외식 한다'라는 대답이 34.1%로 가장 높았고, 생산직의 주부는 '1년에 6회 정도 외식 한다'라는 대답이 70.2%였고, 판매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주부의 경우 '1개월에 1회 정도' 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부의 경우 '1년에 4회 정도' 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직업을 가진 여성이 외식을 더 자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판매, 서비스, 생산직의 여성보다 사무직이나 전문직 여성이 외식을 더 자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01$).

남편의 직업에 따른 외식횟수는 전문직의 경우 '1개월에 1회 정도 외식 한다'가 35.7%, 공무원의 경우 '전혀 외식하지 않는다'가 26.9%, 사무직의 경우 '1년에 4회 정도 외식 한다'와 '1개월에 1회 정도 외식 한다'가 각각 25.7%, 서비스직의 경우 '1년에 4회 정도 외식 한다'라는 대답이 29.9%, 기술직의 경우 '1개월에 2~3회 정도 외식 한다'가 27.8%, 직업이 없는 경우 '1년에 4회 정도 외식 한다'가 30.4%, 남편이 없거나 무응답은 '1년에 4회 정도 외식 한다'가 50.0%로 나타나 남편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외식 횟수가 가장 빈번했고, 공무원, 기술직, 무직일 경우 외식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p<0.001$).

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외식업소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41.9%가 '비싼 가격'을 선택하였고, '영양상의 불균형' 17.0%, '화학조미료의 맛이 난다' 12.9%,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 11.7%, '비위생적인 조리' 9.2%, '교통이 불편하다' 5.1%,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2.1%라고 응답하였다. Kim 등(1998)의 부산지역의 외식 실태 조사에서 장년층 여성이 음식점을 싫어하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 56.5%, '비위생적이어서' 51.0%, '종업원이 불친절해서' 28.5%로 나타난 반면 '가격이 비싸서'는 19.0%로 나타나 대전과는 차이를 보였다. Kim 등(2002)의 진주시내 직장인의 외식이용실태의 연구에서는 외식업소의 개선점으로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을 다시 차려 내는 것'이라는 응답을 31.5%의 직장인이

Table 3. Number of times of eating out by general items N(%)

		mostly not	4times/ year	1time/ month	2-3time/ rmonth	1-2times/ week	Total	χ^2-value
Area	Dong-gu	12(12.1)	32(32.3)	30(30.3)	15(15.2)	10(10.1)	99(100.0)	23.400
	Jung-gu	14(14.1)	27(27.3)	28(28.3)	24(24.2)	6(6.1)	99(100.0)	
	Seo-gu	11(10.9)	22(21.8)	31(30.7)	23(22.8)	14(13.9)	101(100.0)	
	Yuseong-gu	15(14.6)	29(28.2)	21(20.4)	21(20.4)	17(16.5)	103(100.0)	
	Daedeok-gu	22(25.9)	21(24.7)	19(22.4)	17(20.0)	6(7.1)	85(100.0)	
Age	<30	8(10.3)	21(26.9)	11(14.1)	15(19.2)	23(29.5)	78(100.0)	57.024***
	30-39	31(17.3)	52(29.1)	45(25.1)	32(17.9)	19(10.6)	179(100.0)	
	40-49	16(10.3)	44(28.2)	46(29.5)	39(25.0)	11(7.1)	156(100.0)	
	≥50	19(25.7)	14(18.9)	27(36.5)	14(18.9)	-	74(100.0)	
Education level	Primary school	5(38.5)	-	5(38.5)	3(23.1)	-	13(100.0)	45.463***
	Middle school	9(24.3)	10(27.0)	10(27.0)	8(21.6)	-	37(100.0)	
	High school	27(15.4)	61(34.9)	50(28.6)	28(16.0)	9(5.1)	175(100.0)	
	College&University	25(12.3)	50(24.5)	47(23.0)	51(25.0)	31(15.2)	204(100.0)	
	Graduate school	8(13.8)	10(17.2)	17(29.3)	10(17.2)	13(22.4)	58(100.0)	
Religion	Buddhism	23(25.0)	16(17.4)	39(42.4)	9(9.8)	5(5.4)	92(100.0)	91.214***
	Christianity	13(9.7)	50(37.3)	33(24.6)	28(20.9)	10(7.5)	134(100.0)	
	Roman Catholicism	9(10.1)	39(43.8)	15(16.9)	6(6.7)	20(22.5)	89(100.0)	
	Without	29(16.9)	26(15.1)	42(24.4)	57(33.1)	18(10.5)	172(100.0)	
Kind of Job	Civil servants	10(17.5)	11(19.3)	11(19.3)	11(19.3)	14(24.6)	57(100.0)	111.531***
	Professional worker	5(4.1)	19(15.4)	39(31.7)	42(34.1)	18(14.6)	123(100.0)	
	Manufacture worker	1(2.1)	33(70.2)	5(10.6)	6(12.8)	2(4.3)	47(100.0)	
	Sales worker	15(24.2)	14(22.6)	15(24.2)	12(19.4)	6(9.7)	62(100.0)	
	Service worker	9(19.1)	7(14.9)	18(38.3)	9(19.1)	4(8.5)	47(100.0)	
	No job	34(22.5)	47(31.1)	41(27.2)	20(13.2)	9(6.0)	151(100.0)	
Kind of Husband's job	Professional worker	7(4.9)	35(24.5)	51(35.7)	36(25.2)	14(9.8)	143(100.0)	92.542***
	Civil servants	21(26.9)	18(23.1)	10(12.8)	17(21.8)	12(15.4)	78(100.0)	
	Office worker	7(9.5)	19(25.7)	19(25.7)	13(17.6)	16(21.6)	74(100.0)	
	Service worker	12(15.6)	23(29.9)	18(23.4)	20(26.0)	4(5.2)	77(100.0)	
	Engineers	9(25.0)	7(19.4)	10(23.4)	10(27.8)	-	36(100.0)	
	Others	6(33.3)	3(16.7)	3(16.7)	-	6(33.3)	18(100.0)	
	No job	6(26.1)	7(30.4)	6(26.1)	4(17.4)	-	23(100.0)	
	Widow	6(15.8)	19(50.0)	12(31.6)	-	1(2.6)	38(100.0)	
Family forms	Large family	29(29.3)	30(30.3)	27(27.3)	8(8.1)	5(5.1)	99(100.0)	30.086***
	Small family	45(11.6)	101(26.0)	102(26.3)	92(23.7)	48(12.4)	388(100.0)	
Number of family	<3	15(17.6)	13(15.3)	14(16.5)	26(30.6)	17(20.0)	85(100.0)	48.455***
	3-4	30(11.0)	88(32.4)	66(24.3)	60(22.1)	28(10.3)	272(100.0)	
	5-6	26(21.1)	28(22.8)	47(38.2)	14(11.4)	8(6.5)	123(100.0)	
	>7	3(42.9)	2(28.6)	2(28.6)	-	-	7(100.0)	
Family monthly income unit (10,000 won)	<100	3(50.0)	-	3(50.0)	-	-	6(100.0)	93.338***
	100-200	11(18.6)	37(62.7)	4(6.8)	4(6.8)	3(5.1)	59(100.0)	
	200-300	18(9.2)	65(33.3)	58(29.7)	32(16.4)	22(11.3)	195(100.0)	
	300-400	27(17.8)	21(13.8)	46(30.3)	43(28.3)	15(9.9)	152(100.0)	
	>400	15(20.0)	8(10.7)	18(24.0)	21(28.0)	13(10.9)	75(100.0)	

*p<0.05 **p<0.01 ***p<0.001

지적했다. Park 등(2001)의 서울지역 주민의 음식점에 대한 요구에서는 40대 이상의 주민은 외식 시 중요하게 여기는 점으로 '음식의 맛'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재료의 신선도'를 그 다음으로 선택하였다. Ahn(1985)의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식당의 문제점을 '위생상 불결'을 36.7%가 선택하여 서울, 부산 등 많은 지역에서 식당의 위생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때 위생상태를 청결히 유지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외식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자체적인 감시도 중요하겠지만 정부 차원의 위생 감시를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외식업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음식의 맛'이라고 대답한 주부가 38.0%로 나타나 Park 등(2001)의 조사와 일치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가격' 19.5%, '친절한 서비스' 15.4%, '식당의 분위기' 11.7%, '위치와 교통' 8.6%, '다양한 메뉴'가

Table 4. Eating out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N(%)

Characteristics	Items	Frequency
The biggest problem in food service shop	High price	204(41.9)
	Unbalanced nutrition	83(17.0)
	Taste of MSG	63(12.9)
	poor quality of food	57(11.7)
	Insanitary cooking	45(9.2)
	Inconvenient traffic	25(5.1)
	Insufficient smoking area	10(2.1)
Reason of choosing restaurant	Taste	185(38.0)
	Price	95(19.5)
	Service	75(15.4)
	Atmosphere	57(11.7)
	Situation and traffic	42(8.6)
	Menu	32(6.6)
	Others	1(0.2)
Major reasons to choosing menu	Taste	167(34.3)
	Son and daughter's taste	164(33.7)
	Husband's taste	57(11.7)
	Your taste	54(11.1)
	Price	39(8.0)
	Others	6(1.2)
Total		487(100.0)
The biggest problem in food service shop	High price	204(41.9)
	Unbalanced nutrition	83(17.0)
	Taste of MSG	63(12.9)
	poor quality of food	57(11.7)
	Insanitary cooking	45(9.2)
	Inconvenient traffic	25(5.1)
	Insufficient smoking area	10(2.1)
Reason of choosing restaurant	Taste	185(38.0)
	Price	95(19.5)
	Service	75(15.4)
	Atmosphere	57(11.7)
	Situation and traffic	42(8.6)
	Menu	32(6.6)
	Others	1(0.2)
Major reasons to choosing menu	Taste	167(34.3)
	Son and daughter's taste	164(33.7)
	Husband's taste	57(11.7)
	Your taste	54(11.1)
	Price	39(8.0)
	Others	6(1.2)
Total		487(100.0)

6.6%,로 나타났다. Kim 등(2002)의 연구에서는 '가격'이 37.7%, '외식업소와 집과의 거리'가 19.0%라고 응답하여 본 조사와는 차이를 보였다.

메뉴를 선택하게 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음식의 맛'이 34.3%, 대상자가 주부인 만큼 '자녀의 기호'라는 대답이 33.7%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배우자의 기호'는 11.7%, '본인의 기호'는 11.1%로 배우자나 자신의 기호보다 자녀의 기호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라는 대답은 8.0%, '기타' 1.2%로 나타나 부산지의 외식실태에 관한 연구(Kim 등 2002)에서는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 중 '맛이 있어서'를 가장 많이 대답하였고, 다음으로 '그냥 좋아서'라고 대답하여 본 조사와는 차이를 보였다.

Table 5. Food behavior by the subjects N(%)

Characteristics	Items	Frequency
Regular or irregular	Regular	271(55.5)
	Irregular	216(44.4)
Eating habits	Spicy food	123(25.3)
	Skipping meals	117(24.0)
	Quick eating	110(22.6)
	Eating too much at once	82(16.8)
	Unbalanced diet	49(10.1)
	others	6(1.2)
Frequency of Breakfast	3 times per day	213(43.7)
	1-2 times per day	210(43.1)
	Mostly not	64(13.1)
Frequency of Lunch	3 times per day	429(88.1)
	1-2 times per day	57(11.7)
	Mostly not	1(0.2)
Frequency of Dinner	3 times per day	361(74.1)
	1-2 times per day	113(23.2)
	Mostly not	13(2.7)
Total		487(100.0)
What is considered most importantly in dining	Taste of food	232(47.6)
	Nutrition of food	124(25.5)
	Harmonization with family	93(19.1)
	Atmosphere in dining	38(7.8)
Reasons of irregular meals	Too busy	194(39.8)
	Regular meals	115(23.6)
	No appetite	64(13.1)
	Indigestion	52(10.7)
	Nuisancet	34(7.0)
	To lose weigh	28(5.8)
Total		487(100.0)

3. 주부의 식습관

대전시에 거주하는 주부의 식습관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55.5%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불규칙적이라는 응답도 44.4%로 나타나 Lee 등(1999)의 중년기 성인의 식습관과 영양 및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경우 불규칙적이라는 응답이 61.8%, 규칙적이라는 응답이 38.2%인 것과 비교하여 규칙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평소의 자신의 식습관 중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다'라고 응답한 주부는 25.3%, '식사를 자주 거른다' 24.0%, '빨리 먹는다' 22.6%, '과식 한다' 16.8%로 주부의 4명 중 1명꼴로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식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음식의 맛'이 47.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식의 영양가'가 25.5%였다. '가족들과의 어울림'을 선택한 주부는 19.1%였고 '식사시의 분위기'라고 응답한 주부는 7.8%였다.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지를 질문에는 '꼬박꼬박 먹는다'라고 대답한 주부는 43.7%로 나타나 Choi 등(2003)의 56.8%보다 낮았고, 가끔 거른다는 주부는 43.1%였고 '먹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주부도 13.1%로 규칙적이지 못한 아침 식사를 하는 주부가 전체 주부의 절반을 넘어 주부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am 등(1996)의 도시지역 주민의 식습관과 연관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아침 식사를 '가끔 먹거나 거의 안 먹는다'는 응답이 42.6%이었던 것과 비교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 보다 아침식사를 더 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점심식사의 규칙성을 묻는 질문에는 88.1%의 주부가 점심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고 대답하였고, 저녁식사의 규칙성을 묻는 질문에는 74.3%가 규칙적이라고 대답하여 하루 세 끼 식사 중 아침식사를 가장 많이 거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부의 아침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9.8%의 주부가 '바빠서'라는 대답이 가장 높아 Choi 등(2003)의 연구와 유사하였고, 13.1%는 '식욕이 없어서'라고 대답하였다.

주부의 식습관을 일반사항과 비교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다.

주부의 연령에 따른 식습관을 보면 30세 미만일 경우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주부가 전체의 62.8%로 나타났고, 30~ 39세의 주부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주부가 전체의 57.7%,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라고 대답한 주부는 42.5%로 30세 미만의 주부보다 규칙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40~49세의 주부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비율이 60.9%였고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비율은 39.1%로 모든 연령층 중에서 규칙적임을 알 수 있었다. 50세 이상의 주부의 경우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주부가 59.5%였고,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주부는 40.5%로 나타나 연령이 어릴수록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p<0.01$) 중원지역 성인 여성의 식습관에 대하여 조사한 Song 등(199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학력에 따른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주부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주부의 69.2%,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주부의 45.9%,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주부의 62.3%, 대학교를 졸업한 주부의 52.5%,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의 50.0%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고 응답하여 학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없어 Nam 등(1996)의 고학력일수록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고 있다는 연구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주부가 직장생활을 하는 여부에 따른 식습관은 직장생활을 하는 주부와 그렇지 않은 주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p<0.001$). 직장생활을 할 경우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고 대답한 주부는 48.6%에 불과하였으나, 직장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주부는 70.0%로 나타나 다른 연구자(Song 등 1998; Choi 등 2003; Choe 등 2003)들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불규칙적인 식습관이 바쁜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식습관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집단 사

Table 6. Food habits by habitations

N(%)

Items		Regular (n=271)	Irregular (n=216)	Total (n=387)	χ^2-value
Age	<30	29(37.2)	49(62.8)	78(100.0)	13.217**
	30-39	103(57.5)	76(42.5)	179(100.0)	
	40-49	95(60.9)	61(39.1)	156(100.0)	
	≥50	44(59.5)	30(40.5)	74(100.0)	
Education level	Primary school	9(69.2)	4(30.8)	13(100.0)	7.101
	Middle school	17(45.9)	20(54.1)	37(100.0)	
	High school	109(62.3)	66(37.7)	175(100.0)	
	College&University	107(52.5)	97(47.5)	204(100.0)	
	Graduate school	29(50.0)	29(50.0)	58(100.0)	
Job	Have	159(48.6)	168(51.4)	327(100.0)	19.890***
	Without	112(70.0)	48(30.0)	160(100.0)	
Kind of job	Civil servants	28(49.1)	29(50.9)	57(100.0)	30.542***
	Professional worker	62(50.4)	61(49.6)	123(100.0)	
	Manufacture worker	16(34.0)	31(66.0)	47(100.0)	
	Sales worker	31(50.0)	31(50.0)	62(100.0)	
	Service worker	24(51.1)	23(48.9)	47(100.0)	
	No job	110(72.8)	41(27.2)	151(100.0)	
Family forms	Large family	74(74.7)	25(25.3)	99(100.0)	18.368***
	Small family	197(50.8)	191(49.2)	388(100.0)	

*p<0.05 **p<0.01 ***p<0.001

이에는 유의적인 차이(p<0.001)를 나타내었는데, 생산직에 종사하는 주부가 다른 직업을 가진 주부보다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 형태에 따라 식습관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확대가족의 경우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주부가 74.7%였으나, 핵가족의 주부는 50.8%만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고 대답하여 유의적인 차이(p<0.001)를 보였다.

주부의 나이가 30세 미만일 때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주부가 가장 많았고,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생산직에 종사 할수록, 핵가족 일수록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규칙한 식생활을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먼저 주부를 대상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거나,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영양교육 시간을 따로 만들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주부 스스로 자신의 식습관을 진단 할 수 있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식생활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한다면, 주부의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전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외식행동과 식습관에 대하여 외식에 대한 주부의 경향을 알아보고, 식생활 관리자인 주부의 식습관을 파악하여 올바른 식습관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의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연령층도 골고루 분포 되도록 하여 2004년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V12.0 통계 package를 사용하여 분석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응답자 487명의 주부 중에서 동구에 사는 주부 99명(20.3%), 중구에 사는 주부 99명(20.3%), 서구에 사는 주부 101명(20.7%), 유성구에 사는 주부 103명(21.1%), 대덕구에 사는 주부 85명(17.5%)이었다. 주부의 연령은 30세 미만 79명(16.0%), 30세~39세 179명(36.8%), 40세~49세 156명(35.9%), 50세 이상 74명(15.2%)이었고,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04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없다는 응답이 172명(35.3%), 종교를 가진 경우에는 기독교가 137명(27.5%)이었다. 직업은 327명(69.0%)이 없었고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전문직이 123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남편의 직업은 전문직이 143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형태는 확대가족 99(20.3%), 핵가족 388명(79.7%)이었고, 가족 구성원의 수는 3~4명 272명(55.9%)으로 가장 많았고, 한달 수입은 200~ 300만원 40.0%로 가장 많았다.

2) 외식횟수는 '1년에 4회' 외식한다는 주부가 가장 많았고, 한달 외식비는 '10만 원 이하', 외식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족간의 화목을 위해서', 외식 시 1회 비용은 3만원~5만원, 외식 시 주로 선택하는 메뉴는 한식을 선택하였다.

3) 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외식업소의 문제점은 '가격이 비싸다', 자주 이용하는 식당을 선택하는 이유는 '음식의 맛있어서', 식당에서 메뉴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음식의 맛'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4) 주부의 연령이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수록,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남편이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핵가족일수록, 가족 수가 적을수록, 한달 평균 가족의 수입이 많을수록 외식횟수가 많았다.

5) 식습관의 규칙성을 질문한 결과 271명(55.5%)이 '규칙적이다'라고 대답하였고, 216명(44.4%)은 '불규칙적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자신의 식습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에는 123명(25.3%)의 주부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를 꼽았고,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꼬박꼬박 먹는다', '가끔 거른다'라는 응답이 각각 213명(43.7%), 210명(43.1%)이었고, 점심 식사의 경우는 '꼬박꼬박 먹는다'라고 대답한 주부가 전체의 88.1%로 나타났고, 저녁 식사의 경우 '꼬박꼬박 먹는다'라는 응답을 361명(74.1%)의 주부가 선택하여 아침, 점심, 저녁 중 점심 식사를 가장 규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식사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질문하였을 때에는 47.8%의 주부가 '음식의 맛'이라고 대답하여 25.5%를 차지한 '음식의 영양가'를 훨씬 웃돌아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의 영양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자신이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은 '바빠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바쁜 직장생활로 인한 아침 결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이 학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은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식습관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외식이 과거에는 단순한 끼니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현대에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거나 가족간의 화목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여기는 등 외식의 동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외식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부의 식습관과 외식행동에 대한 연구는 향후 서비스 개선과 외식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Ahn SJ. 1985. A study on the survey of the meals outside home in Seoul. Korean J. Soc. Food&Cookery Sic., 1(1): 82-93

Ann IS, Lee MY, Moon SJ. 1988. A study on the dietary behavior in middle-aged women. Korean J. Home Economics Asso., 26(1): 43-49

Chang NS. 1996. Changes in dietary habits of adults with middle

and upper income levels in Seoul. Korean J. Nut., 29(5): 547-558

Cheong HS. 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habit of mothers and food preference and other factors of their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 Home Economics Asso., 33(3): 207-224

Choe JS, Ji SM, Baeg HY. 2003. A study on the eating habits and dietary consciouseness of adults in urban area. Korean J. Food&Nutr., 32(7): 1132-1147

Choi MK, Kim JM, Kim JG. 2003. A study on the dietary habit and health of office workers Seoul. Korean J. Food Culture, 18(1): 45-56

Choi TD. 1990.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eatery industry in Korea. Korean Food Marketing Asso., 7(1): 139-159

Chung SJ, Kim WY. 1985.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habits of housewives, Korean J. Home Economics Asso., 23(4): 101-108

Hong KW, Kim YS. 2002. A study on oattern of dining behavior based in dining-out expense. Korean J Soc. Food Sci., 8(2): 93-117

Jang HS, Kwon CS. 1995. A study on the nutritional knowledge, food habits, food preference and nutrient intakes of housewives living in urban area. Korean J. Food&Nutr., 24(5): 675-683

Kim DJ. 2002.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for dining-out in Busan. Korean J. Food&Nutr., 15(4): 357-364

Kim HS, Ghung CE. 2001.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Korean J. Food Culture, 16(2): 147-158

Kim IS, Yu HH, Park SH. 2000. A survey on consciousness of eating out behavior and food waste by housewives in Jeonbuk area. Korean J. Food Culture, 15(4): 325-337

Kim MS. 2005. A Study for Eating-Out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 Korean J. Food Culture, 20(5): 548-553

Kim SJ, Sin JY, Kim EH. 2004. Research articles: The impact of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in food service industry -Focusing the Korean restaurants.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n, 7(1): 67-83

Kim SY. 2004. Factors influencing salaried employees' choice of a restaurant in JinJu. Korean J. Food Cultuer, 19(1): 83-94

Kim JY, Kim SY. 2002. Restaurant food choice and preferences of salaried employees in JinJu classified by age and gender. Korean Journal of Nutr., 35(9): 996-1007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Homepage. www.nso.go.kr

Lee GS, Yoo YS. 1992. A study on the nutritional knowledge dietary behavior and nutrient intakes of rural housewives based on the rural housewives in Chonbuk province. Korean J. Home Economics Asso., 30(4): 63-76

Lee HG, Shim JS.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habits status of the middle-aged adults. Korean J. Home Economics Asso., 37(4): 17-27

Lee YM, Lee KW, Chang HK. 1996. Eating out behaviors and attitude toward Korean foods in adult. Korean J. Food Culture, 4(1): 46-61

Lim BY. 1996. A study of consumer's eating pattern in Korea. Korean J Soc Food&Cookery Sci.,2(1): 209-236

Mo SM, Kim CI, Lee SY, Yoon EY. 1986. A study on dining out behaviors of fast foods focused on Youido apartment compound in Seoul. Korean J. Food Culture, 1(3): 295-307

Mo SM. 1987. Trend in food service industry and public health/ nutrition,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3(1): 3-18

Moon JW, Ahn JD. 1996. A survey on housewives's dining-out behaviour in Pusan. Korean J. Food Culture, 11(3): 359-367

Ly SY, Kim KE, Kwon SJ. 2001. Food purchase behavior of Taejon full time Housewives with Different Education Levels. Korean J. Food Culture, 16(2): 99-109

Moon SJ, Lee KY, Kim HS, Sohn KH, Lee YC, Kwak DK. 1979. A preliminary study on nutritional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Korean J. Home Economics Asso., 17(3): 23-35

Nam S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ting habi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Korean J. Food Culture, 18(6): 515-527

Nam WK, Im JE. 1996. A study on the eating habits and its related factors of residents in urban area. J of Korean Soc for Health Education&Promotion, 13(2): 69-97

Park GS, Shin YJ. 1996. A study of dining out behaviors of businessmen in urban regions. Korean J Soc. Food&Cookery Sci., 12(1): 13-20

Park JW, Ahn SJ. 2001.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s dining-out behaviors classified by age and gender. Korean J. Food Culture, 16(4): 276-296

Park YS, Jeong YS. 2004. Determinants of food away from home and consumption patterns. Korean J Food Culture, 19(1): 118-128

Song BC. 1998. Dietary patterns of the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Seoul focusing on the eating-out and food preference. J of Konkuk Natual Sci., 9(2): 269-281

Yang IS, Kim SH, Shin SY. 2000. Analysis of the customer's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for service quality in restaurants. Korean J. Food Culture, 15(1): 45-50

Yoon HR. 2005. The Study of Dinning-out Behavior and Preference on Korean Foods by Age Group. Korean J. Food Culture, 20(5): 608-614

(2007년 4월 18일 접수, 2008년 2월 1일 채택)